

# 라디오방송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린이문학의 자리(1)

최미진\*

1. 서론
2. 해방 후 라디오방송의 재편과 어린이문학의 혼진
3. 한국전쟁기 어린이방송과 어린이문학의 패퇴
4. 전후복구기 어린이방송의 재편과 어린이문학의 모색
5. 결론

##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해방 후부터 전후복구기까지 라디오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이 재편된 방식을 통해 어린이문학의 기반을 살펴나가는 데 있다. 여기에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라디오매체의 배열과 수사적 방법에 따라 전달되는 일련의 어린이문학을 일컫는다.

첫째, 해방기 어린이 프로그램은 1945년 10월 《어린이시간》이 부활된 이래 고정적으로 편성되었다. 동요 중심으로 편성되는 가운데 동화와 동극은 많지 않았고, 현재로는 일부 작가들의 참여만 확인 가능했다. 1946년 미국식 편제가 도입된 이후는 《유아시간》을 신설하는 한편 《어린이시간》의 세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교양함양에 노력하였다. 창작물 비중이 줄어든 가운데 어린이연속극 『똥똥이의 모험』이 시도되어 성공적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는 김영수, 김내성, 유 호 등 역량

---

\* 부산대 교양교육원 전임대우강사

있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여건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둘째, 한국전쟁기 어린이 프로그램은 1951년 12월 개편 이후 속개되었다. 이 시기 유엔군사령부가 제공한 《할머니얘기》가 번역 방송되었는가 하면, 《어린이시간》은 동요회 중심으로 전시동요가 주로 방송되었다. 작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터라 다른 장르는 매우 약화되었고, 목적문학의 혐의가 짙었다.

셋째, 전후복구기 라디오방송은 어린이 프로그램은 매년 변전을 거듭하였다. 1953년 세 차례의 개편 과정에서 동요에 치중했던 《유아시간》이 약화되는 한편, 《어린이시간》은 세부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가운데 불안정한 운영상을 드러냈다.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비중은 높아졌으나 창작층의 들쭉날쭉한 참여양상만큼이나 작품성을 담보하기 힘들었다. 안정적 국면에 접어든 1954년에는 《유아시간》을 폐지하는 대신 《어린이시간》을 연장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는가 하면 신설도 잇따랐다. 대표적 오락 프로그램들과 〈연속어린이극〉 등 라디오매체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창작 시스템이 연속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걸맞은 작가층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한편 1954년 개국한 기독교방송국은 대체로 안정적 포맷을 갖춘 가운데 《어린이시간》을 운영하였다. 종교방송의 특색을 살리는 세부 프로그램이 우세한 가운데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번안 중심의 연속물과 창작 중심의 단편물이 병치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박화목의 영향 아래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주제어 : 라디오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문학, 해방기, 한국전쟁기, 전후복구기, KBS, CBS.)

## 1. 서론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라디오매체의 배열과 수사적 방법에 따라 전달되는 일련의 어린이문학이다. 주지하다시피 청각에만 의존하는 라디오 매체는 특유의 연상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다른 매체들에 비해 모호할 가능성이 있는 의미 전달에 완벽을 기할 뿐 아니라 전달 상황의 생생함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연상성은 라디오매체의 특성과 청취자의 역할 사이에 자리매김하게 되는데,<sup>1)</sup> 어린이를 주된 청취대상으로 삼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어린이문학은 면면은 《어린이시간》 등으로 대표되는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대부분의 연예오락 프로그램과 일부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문학예술 분야의 어린이문학, 즉 라디오동요, 라디오동화, 라디오동극, 라디오수필, 노래극 등이 그것이다.

지금껏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본격적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이래 동극 발달사에서 라디오동극이 일부 다루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sup>2)</sup>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박태원,<sup>3)</sup> 박의섭,<sup>4)</sup> 안동민<sup>5)</sup>

1) 최미진, 「한국 라디오서사의 갈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72-173쪽.

2) 홍근표, 「아동극의 어제와 오늘」, 『아동문학평론』 제1권 제1호, 한국아동문학연구원, 1976.5, 58-59쪽.; 「아동극의 어제와 오늘(하)」, 『아동문학평론』 제1권 제3호, 한국아동문학연구원, 1976.11, 27-29쪽.

3) 하신애, 「박태원 방송소설의 아동표상 연구-전시체제기 일상성과 프로파간다 간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45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335-369쪽.

4) 윤석산, 「통암 박의섭의 방송동극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3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51-172쪽.; 최명표, 「방송동극을 통한 민족정체성의 추구-박의섭론」, 『아동문학평론』 제36권 제2호, 2011.6, 22-47쪽.

5) 최미진, 「1950년대 안동민의 라디오동화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5집, 한국문학회, 2013, 579-614쪽.

등 라디오방송과 관련된 작가의 문학 활동이 재조명되고 작품의 특성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폭과 깊이는 여전히 한정적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한국문학사에서 어린이문학이 기존의 문학 양식이나 담론들과의 갈등과 경쟁 국면에서 패배의 양상을 띠면서 주변화한 데 기인한다. 문학 제도와 지배 담론은 어린이문학에 대해 눈길을 주면서도 그것의 문학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문학 장(場)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어린이문학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명망주의 작가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가운데 매체별 연구는 아직 답보상태에 있으며,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 또한 그러하다. 다른 한편으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실증적 접근이 힘들다는 점이다. 방송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1차 문학 사료의 망실조차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라디오 대중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방송환경 속에서 문학 담당층이나 방송 담당층 모두 1차 문학 사료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방송자료가 보존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에 접어들면서였고, 때문에 방송자료로 남겨진 어린이문학 자료는 찾아내기 힘들다. 중요한 기록조차 『한국방송사』를 비롯한 방송국별 방송사가에 기대어 있으나 그것조차 어린이방송의 주요 사항을 개관해놓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sup>6)</sup> 몇몇

6) 공영방송체제에서 편찬된 『한국방송사』는 서울중앙방송국뿐 아니라 여타 방송국의 상황을 개관하는 가운데 어린이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방송국에 치중된 데다가 방송사 기술 부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내장하고 있다. 이제껏 어린이문학을 비롯한 라디오서사 연구에서 『한국방송사』를 2차 문헌으로 인용한 사례가 적지 않으나, 이에 대한 재고 또한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하겠다. 이는 기독교방송국을 비롯한 다른 방송사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한국방송7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방송사70년』, 한국방송협회·한국방송공사, 1997.; 국군방송40년사 편찬위원회 편, 『국군방송 40년사』, 국군홍보관리소, 1995.; 사사편찬위원회 편, 『CBS50년사』, CBS, 2004.

방송 담당층의 회고록들<sup>7)</sup> 역시 당시의 정황을 어느 정도 가늠하는 데 조력할 뿐이다.

그럼에도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자산은 상당해 보인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고정적인 방송 포맷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향유되었던 까닭에 어느 라디오문학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면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 방식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대의 상황에 발맞춰 라디오 프로그램은 개편을 거듭했고, 그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 운영 또한 포맷을 달리했다. 그것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자리를 가늠하는 첫 단계로서 유의미하다.

이 글은 해방 이후부터 전후복구기까지 라디오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방식을 통해 어린이문학의 기반을 살펴나가고자 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방식은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당대 정치 사회적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였다. 혼전을 거듭했던 해방기부터 전후 복구기까지를 우선적 대상으로 삼았으며,<sup>8)</sup> 그것을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한국전쟁기, 그리고 전후복구기로 나눠 살필 것이다. 그리고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자리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주요 작가층을 밝히는 데 한정하기로 하겠다.<sup>9)</sup>

7) 해방 이후 방송 담당층의 회고록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대표적인 저서는 다음과 같다. 노정팔, 『한국방송과 50년』, 나남, 1995.; 한운사, 『구름의 역사』, 민음사, 1996.; 이내수, 『이야기 방송사』, 씨앗을뿌리는사람, 2001.; 한국TV방송 50년위원회 편, 『한국의 방송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이 외에도 기존의 방송사 부록이나 방송 전문잡지를 비롯한 잡지의 기사로 산재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8)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 어린이 프로그램의 시기별 재편방식은 (1)해방기, (2)한국전쟁기, (3)전후복구기, (4)라디오시대의 개화기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1)에서 (3)까지만 한정하며, (4)는 후속 글에서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서 (3)과 (4)의 구분은 서울중앙방송국의 지침 변화가 이루어진 1955년보다 방송환경이 개선되면서 구체적 실체가 드러난 1956년을 기점으로 삼았다.

## 2. 해방 후 라디오방송의 재편과 어린이문학의 혼전

해방 이후 경성방송국은 방송권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미군이 경성 방송국을 접수한 것은 9월 15일이며, 이튿날 오후 2시 50분부터 방송이 재개되었다. 이때 서울중앙방송국은 미묘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군정청은 퍼시블 대위를 비롯한 미국 고문관들을 파견하였는가 하면, 방송권 독립을 갈망했던 조선방송협회 또한 감독관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서울중앙방송국은 조선방송협회와 갈등을 내장한 가운데 미군 공보부 소속이면서 체신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미군정이 본격화된 후 서울중앙방송국의 방송기구 개편에서도 여전하였고,<sup>10)</sup> 1946년 8월 기술직 직원들의 파업 사태로 표면화되기도 했다.<sup>11)</sup> 그럼에도 군정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서울중앙방송국은 사상 통제의 선봉에 있었으며, 단정수립 직전인 1948년 8월 7일 발표된 정부조직법에 준해 공보처 방송국으로 흡수되면서 국영방송체제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 시기 라디오방송 어린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자.

해방 후 잠시 중단되었던 《어린이시간》이 부활된 것은 1945년 10월이었다. 《어린이시간》은 6시 30분부터 15분간 방송되었다. 동년 12월

9)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구체적 면면은 후속 논의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10) 1946년 3월 29일 군정청의 부서개편으로 공보국이 공보부로 확대되었고, 4월 1일부터 서울중앙방송국은 방송과로 축소되어 공보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기술 업무는 여전히 조선방송협회에 존치시켜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32-133쪽.

11) 미군정 아래 방송체제의 이원화는 업무 분담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났다. 서울중앙방송국은 방송만 전담하였고, 조선방송협회는 청취자 가입, 청취료 징수, 수신기 보급 등을 담당하였다. 이때 조선방송협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술직원들은 두 부서 간의 긴장 속에서 작업해야 했는데, 서울중앙방송국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최창봉·강현두, 『우리방송 100년』, 현암사, 2000, 57쪽.

에 한정해 본다면, 동요를 비롯한 노래공부, 작은 음악회, 그리고 동화와 동극 등이 방송되었다. 당시 강좌와 강연 중심의 프로그램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시간》 운영은 매우 열악했다. 방송 담당자들은 서울 시내의 유명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방송 분량을 채워나갔다.<sup>12)</sup> 그 대부분은 〈동요〉,<sup>13)</sup> 〈노래공부〉, 〈작은 음악회〉 등 이름을 달리했지만 동요 중심의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이었다. 그것은 봉선화 어린이 노래회를 시발로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되었다.<sup>14)</sup>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동안 금지되었던 옛 동요가 한꺼번에 소생하는가 하면 새로운 동요도 쏟아져 나왔다.<sup>15)</sup> 당시 노래지도는 조성녀, 조은자, 현금봉, 박은봉 등이 자주 출연하였다.<sup>16)</sup> 그리고 동화와 동극의 필진들은 양미림, 유영애, 홍은순 등 일부분만 확인 가능했다.

1946년 10월 18일 개편으로 라디오방송에서 미국식 편제가 도입되었다. 정시방송제와 기본방송순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때 한 개의 프로그램을 15분 단위로 구성하는 쿼터제로 전환하였다. 청취자들을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거나 간주곡으로 채웠던 30분 단위일 때보다 프로그램 운영이 계획적이고 짜임새를 갖춰갔다. 《어린이시간》 또한 프로그램 운영의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단정수립 이후에도 이 시기의 포맷을 대부분 유지해갔다. 그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자.

- 
- 12) 송영호, 『방송 13년 이면사』, 『방송』 제28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8.12, 74쪽.  
 13) 라디오방송 프로그램명은 <>로, 그 세부 프로그램은 〈〉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14) 봉선화 어린이 노래회는 1945년 10월에 창설되어 그 해 12월부터 라디오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울중앙방송국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 탓에 미군정의 차량지원이 고작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1947년 5월 전속방송 어린이 노래회가 조직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송영호, 앞의 글, 74쪽.  
 15) 한국방송70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88쪽.  
 16)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75쪽.

첫째,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노래를 시그널 뮤직을 도입한 것이다. 시그널 뮤직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미국식 라디오방송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어린이시간》의 시간 확대와 《유아시간》의 신설을 촉발하였다. 개편 당시 《어린이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15분간 방송되었다. 그러나 1946년부터 1947년 사이 5시 20분이나 35분부터 방송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만큼 방송시간이 들쭉날쭉했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이후에는 5시 30분부터 30분간 방송되었다. 15분씩 나눠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는데, 이를테면 1948년 12월 18일에는 “17:30 작문낭독 17:45 위인의 어렸을 적”이 연이어 방송되고 있었던 것이다.<sup>17)</sup> 아울러 이 시기 《유아시간》의 신설도 이루어졌다. 『한국방송사』에서는 “1948년 4월께” “오전 11시 15분간” 방송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sup>18)</sup> 신문자료들은 1947년 2월에 이미 《유아시간》이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아시간》의 방송담당자는 밝혀져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는 얘기 시간이었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sup>19)</sup> 그럼에도 동화는 드물게 방송되었고, 그마저 『이솝이야기』와 같은 번역 동화가 다수 낭독되었다.<sup>20)</sup> 《어린이시간》의 운영방식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야기에 중점을 두기보다 노래에 치중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어린이시간》의 세부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었다. 당시

17) 『라디오』, 『동아일보』, 1948.12.18, 2면.

18)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76쪽. 이후 출간된 한국방송사 관련 책들도 『한국방송사』에 근거를 두고 기술하고 있다.

19) 한국방송70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04쪽.

20) 『경향신문』에 따르면, “11:00 이솝이야기 조성녀”로 기술되어 있다. 『라디오』, 『경향신문』, 1947.11. 11, 2면. 이렇듯 《유아시간》은 《어린이시간》에 비해 서구 동화가 적지 않고, 작가보다 담당자나 낭독자를 명시한 경우가 더 많다.



《어린이시간》은 〈어린이 새소식〉을 통한 보도, 〈선생님 말씀〉에서 교훈적 이야기, 〈위인의 어렸을 적〉의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 이야기, 「즉우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와 같은 과학이나 지리이야기, 「작문낭독」과 같은 청취자의 글 등이 방송되었다. 이때 세부 프로그램들은 요일별로 띠를 형성하지는 않았으며, 그만큼 운영이 변칙적이었다. 이전 시기에 비해 어린이들의 교양과 상식을 함양하는 서사물이 급증하였던 반면 동화나 동극 등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것은 세부 프로그램의 증가에 비해 작가층이 매우 열악했던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전속작가제가 등장하고 방송극회가 결성되는<sup>21)</sup> 상황에 걸맞지 않게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단정 수립 후에도 여전히 유혜준, 이호원 등 외부 작가에 의존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요의 강세는 여전하였다. 특히 1947년 5월 방송 어린이 노래회가 조직되면서 보다 활성화되었다. 방송 어린이 노래회는 서울중앙방송국의 배준호가 처음 조직하였는데,<sup>22)</sup> 그것은 만연했던 일본 노래 대신 새로 나온 동요를 보급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sup>23)</sup> 그러나 새로운 동요 보급은 방송국의 제반여건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47년 삼일절 특집 노래극 「우리의 소원」의 성공은 외부 작가들의 무

21) 해방 후 미군정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계에 스크립터를 전속으로 두었는데, 이때 김성민, 유호, 김희창, 이익 등이 활동했다. 그리고 1947년 3월에는 배우를 주축으로 방송극회가 결성되어 방송극 제작에 힘을 실었다.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77쪽과 187쪽.

22) 당시 배준호의 회고에 따르면, 전속 방송 어린이 노래회의 계획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국 가까이 있는 10개 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 어린이 중 노래에 소질이 있는 어린이 10여명을 교장이 추천해 주면, 그 중에서 선발토록 한다. 지도자와 반주자는 유급제로 한다. 방송국에서는 연습할 만한 장소가 충분치 않으니 방송국 옆에 있는 덕수국민학교로 정한다. 지도자는 청계국민학교의 정세문과 덕수국민학교의 김순흥으로 정한다.” 한용희, 『한국동요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8, 118쪽.

23)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앞의 글, 175쪽.

료봉사가 이끌어낸 대표적 경우다.<sup>24)</sup> 이 작품은 《어린이시간》을 통해 방송된 최초의 노래극이었다는 점, 노래시간은 단 5분이지만 어린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국민적 동요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 동요의 보급은 방송어린이노래회의 수고로만 이루어질 수 없었고,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없어졌던 어린이 노래회들<sup>25)</sup>의 노력이 컸다.

넷째, 어린이연속극 『뽕뽕이의 모험』이 시도되어 성공적 결과를 낳았다. 『뽕뽕이의 모험』은 미 고문관 미스 브라운이 『툼소여의 모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창안해낸 프로그램이다. 최초의 집필은 랜돌프가 맡았으며, 미스 브라운도 그 후 얼마동안 직접 대본을 쓰기도 했다.<sup>26)</sup> 그 후에는 김영수, 유 호, 김내성 등 많은 작가들의 구성으로 진행되다가 300회로 막을 내렸다. 4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해설은 줄곧 홍은순이 담당했으며, 음향효과는 이상만이 맡았다.<sup>27)</sup> 1946년 등장하여 격일로 방송된 『뽕뽕이의 모험』은 최초의 어린이연속극이라는 기념비적 작품에 그치지 않는다. 『뽕뽕이의 모험』 이후 시그널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라디오드라마에서는 테마 뮤직이 하나의 포맷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8)</sup> 그리고 라디오드라마를 본격적

24) 『우리의 소원』은 《어린이시간》 담당자였던 배준호와 '봉선화 어린이 노래회' 지도자였던 안병원이 의기투합하고, 노래극 원고와 작사는 안석주에게, 작곡은 안병원 자신이, 편곡은 권길상이 각각 무료봉사를 했던 결과물이다. 한용희, 앞의 책, 116~117쪽.

25)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75~176쪽.; 송영호, 앞의 글, 74~75쪽.; 한용희, 앞의 책, 114쪽.

26) 브라운과 랜돌프는 서울중앙방송국 편성과에 파견 나와 있던 작가들이었다. 랜돌프는 《영어강좌》 시간에 임병리와 함께 영어회화를 지도했고, 미스 브라운은 《군정청시간》, 《노동의 시간》 등 정책프로그램의 대화극 같은 것을 집필했다. 노정팔, 『한국방송과 50년』, 나남출판, 1995, 41쪽.

27) 이내수, 『이야기 방송사』, 씨앗을뿌리는사람, 2001, 318쪽.

28)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81쪽.

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후 어른들의 연속극을 탄생시키는 모태가 된 작품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시간》에서 『뽕뽕이의 모험』에 뒤이은 어린이 연속극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뽕뽕이의 모험』이 4년여 동안 방송된 것을 감안한다면, 방송이 끝난 시점은 1950년 전후다. 신문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949년 7월 어린이연속극 『희망의 언덕』과 11월에 『아름다운 새벽』이 각각 방송되었고,<sup>29)</sup> 1950년 2월에는 명작 동극 『쑤페이이의 일기』(박 철 번안)이 연속 방송되고 있었다. 짧지 않은 기간 방송된 듯하나 『뽕뽕이의 모험』에 대당할 만한 어린이연속극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던 셈이다. 무엇보다 『뽕뽕이의 모험』 종료 이후 기존 작가나 연출자, 출연진의 피로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역량을 갖춘 작가와 작품을 교섭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전쟁 발발로 새로운 모색조차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 3. 한국전쟁기 어린이방송과 어린이문학의 패퇴

한국전쟁기 어린이방송은 파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리매김을 달리 해갔다. 전쟁 상황에 직면해 라디오방송은 급전하는 전황뉴스에 집중했고, 《어린이시간》을 비롯한 교양·오락물들은 그 연장선에서 일부분 다루어졌을 뿐이다. KBS가 유엔군 심리전부 지휘 아래 있었던<sup>30)</sup> 1·4후

29) 어린이연속극 『희망의 언덕』은 나심 작으로 '한국청소년사'라고 부기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새벽』은 남호 작으로 명시되어 있다. 『라디오』, 『경향신문』, 1949.8.2, 2면과 1949.12.20, 2면.

30) 서울수복 직후 유엔군사령부가 KBS의 방송주권을 건네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유엔군사령부의 심리전부(G-2) 관할에 놓인 KBS가 “라디오 서울 자유의 소리”

퇴 이후에야 안정적인 전시방송체제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유엔 심리전부는 KBS 파견대를 통해 “심리전 논평과 뉴스 프로그램은 파견대의 지시 아래”, 그리고 “오락과 교육 프로그램은 KBS직원이” 제작하여 방송하였고, “KBS 스케줄은 파견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도록 했다.<sup>31)</sup> 한국전쟁기 라디오방송은 다시금 유엔의 이름으로 미국식 통제와 혜택을 받으며 방송문화의 새 문법을 형성해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방송이 재개된 것은 1951년 12월 16일 개편 이후다.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할머니얘기》의 신설이다. 한국전쟁기 라디오 프로그램 편성에서 특징적인 것은 프라임 시간대를 외부중계 프로그램이 선점하고 있었다는 점<sup>32)</sup>과 외부 제공 프로그램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할머니얘기》는 유엔군사령부가 제공한 동화 프로그램으로 번역하여 매일 방송되었다. 이러한 외부 프로그램은 제공기관의 목적성이 방송을 통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 승리라는 같은 목적 아래에 있더라도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게, 그리고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휴전회담이 지지부진했던 1952년 6월에 이르면 《할머니얘기》는 화, 목, 토, 일요일에 방송되고 있었다. 당시 격일제로 함께 방송된 것은 《우리들의 세계를 만드는 사

---

로 방송되었으며, 이때 심리전부는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 대본작성까지 총체적으로 관여하였다. 이러한 심리전부 아래 KBS는 공보처와 국방부 정훈국이 검열하는 중층적 통제 상황에서 운영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당시 미국이 KBS의 심리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방송시설을 복구하고 최신 기자재를 지원하였고, 그것이 전후 KBS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장영민, 『한국전쟁기 유엔군사령부의 KBS통제와 지원』,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1호, 2012, 한국언론학회, 441~482쪽.

31) 장영민, 위의 글, 449쪽.

32) VOA에서 《미국의 소리》, 《청년의 시간》, 《기록뉴스》를, VUNC에서는 《유엔군사령부방송》을 각각 중계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오전 7시, 정오, 오후 8시 전후한 프라임 시간대를 선점하였는데, 특히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유사 프로그램이 떠를 형성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람들》인데, 이는 《위인의 어렸을 적》과 같은 부류의 이야기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도 직전인 1953년 7월 1일 개편 이후 《할머니얘기》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KBS의 자체제작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 기간 《어린이시간》은 《가정시간》과 더불어 고정적으로 편성된 프로그램들 중 하나였다. 당시 《어린이시간》은 배준호가 맡아 소규모의 편성으로 재출발하였는데, 매일 오후 6시 30분에 15분간 방송되었다. 《어린이시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동요다. 이 시기 동요는 우리 동요보급에 앞장섰던 이전 시기와 달리 전시동요로 탈바꿈하였다. 《어린이시간》에 방송된 동요는 여러 어린이 노래회에 의하여 불리어지고 있었다. 1950년 4월부터 방송 어린이 노래회를 맡아보던 안병원이 해군에 소속하여 어린이음악대를 조직하는가 하면, 종달새 동요회를 맡아보고 있던 한용희가 내무부 치안국에 소속하여 국립경찰 어린이 노래회를 조직하여 방송에서 전시동요를 부르기도 하였다. 동화나 동극보다 손쉬운 전시동요가 지배적이었던 셈이었다.

[표1] 한국전쟁기 《어린이시간》 방송작품 현황<sup>33)</sup>

프로그램명	방 송 작 품
어린이시간	동극 『겨울바람』(김백엽 작, 1951.11.7), 소녀소설 『마음의 창』(1951.11. 17), 동화 『바둑이와 편지』(강백상 작, 1951.11.19.), 『방어린이』(1952.1.8.), 동화 『백두산의 꽃』(모기운, 1952.1.23), 소년소설 『아버지』(강소천 작, 1952.2. 20), 입체대화극 『거룩한 자옥』(최치애·전백걸 작,1952.3.26)

33) 한국전쟁기 라디오 프로그램의 편성은 『한국방송사』와 4대 일간지의 〈라디오안내〉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방송사』에는 1951년 12월 16일 개편 당시 저녁방송 프로그램 편성만 제시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편, 앞의 책, 257쪽. 4대 일간지의 〈라디오안내〉의 경우, 『서울신문』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고, 다른 신문들은 간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951년 9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1952년 1월

[표1]은 한국전쟁기 《어린이시간》에 방송된 어린이문학 작품들 중 극히 일부분이다.<sup>34)</sup> 동요를 제외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신문자료를 통해 명시된 것이 고작 7편에 불과하고, 작품의 실체를 확인할 길조차 없다. 때문에 이 시기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을 가늠하는 일은 매우 난감하다. 그럼에도 이 시기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라디오서사와 마찬가지로<sup>35)</sup> 작가층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로 방송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 가능하다. 월남한 어린이문학가 강소천뿐 아니라 시인 모기운, 전후 라디오드라마 창작에 힘을 실었던 김백엽 등이 이 시기 라디오매체를 통해 창작기반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입체대화극 『거룩한 자옥』은 1950년대 서울중앙방송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생신을 ‘탄신일’로 격상시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던 흔적을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전쟁기 특유의 선전성과 교훈성이 라디오서사 전반에 널리 퍼져있던 상황 속에서 고질적인 작가 부족에 허덕였던 까닭에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꺾이는 불가피했다 하겠다.

5일부터 4월 29일까지와 10월 3일 부분이 음성녹음 나와 있다. 『동아일보』는 1952년 2월 15일부터 29일까지만 밝혀두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1952년 6월 16일부터 1953년 4월 15일까지 긴 기간 편성표를 제시했는데, 1953년 2월부터 간헐적 양상을 띠다 4월 15일 이후 없어졌다. 환도방송이 개시된 7월 1일부터 다시 게재하기 시작했다. 정진석 편, 『6·25 전쟁기간 4대신문』, LG상남언론재단, 2009 참조; 최미진, 『한국전쟁기 라디오서사와 문제안의 『남북삼천리』, 『한국민족문화』 제49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132쪽 재인용.

34) 방송자료와 문헌자료가 부재한 가운데 한국전쟁기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면면은 신문매체의 『라디오』 안내에 남아 있는 작품이나 작가 이름을 확인하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5) 최미진, 『한국전쟁기 라디오서사와 문제안의 『남북삼천리』, 『한국민족문화』 제49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133~134쪽.

#### 4. 전후복구기 어린이방송의 재편과 어린이문학의 모색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조인됨에 따라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공식적으로 환도를 발표했다. 서울중앙방송국은 이미 6월에 15일, 20일, 25일 세 차례로 나누어 서울에 선발대를 파견하여 환도 준비를 갖추었고, 대부분 6월 말까지 서울로 복귀했다.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라디오방송을 실시했으며, 이때 1일 방송시간은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낮 11시부터 14시까지, 그리고 저녁 17시부터 24시까지 총 14시간이었다. 환도 직후 KBS는 방송제한 상황이 열악했던 만큼<sup>36)</sup> 국민의 재건의욕을 은연중에 돋우어 주고 청취자에게 위안을 주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 연장선에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자.

1953년 KBS는 7월 1일, 11월 9일, 12월 15일 세 번에 걸쳐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때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어린이시간》과 《유아시간》으로 대별되며, 모두 15분간 방송되었다.

우선, 《어린이시간》에 비해 《유아시간》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어린이시간》은 오후 6시 즈음으로 고정화되는 양상을 띠는 데 비해 《유아시간》은 오전 7시 15분에서 7시 30분으로, 다시 8시 30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는 《유아시간》의 운영에 문제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좌다. 《유아시간》이 아침방송의 골든아워인 7

36) 서울중앙방송국 건물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방송협회 건물에 더부살이가 불가피했다. 게다가 목조건물이라 “스튜디오 안에서도 외부잡음이 들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던 탓에 라디오방송의 본연에 충실하기 힘들었다. 그만큼 서울중앙방송국의 급선무는 전쟁으로 파괴된 방송시설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다른 지방 방송국도 상황도 다르지 않아 전국 방송망을 재정비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노정팔, 앞의 책, 199쪽.

시대를 점차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방송시설뿐 아니라 송전 상황이 열악했던 터라 골든아워가 아니면 방송청취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 1957년에도 일반 가정의 오전 송전시간이 8시 15분까지로 제한되어 있을 정도였다.<sup>37)</sup>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유아시간》이 《어린이시간》에 비해 소홀했거나 청취자들의 호응이 그리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린이 프로그램들은 세부 프로그램이 불안정하게 운영되었지만,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비중은 높았다. 《유아시간》은 〈노래부르기〉에 치중되어 있었고, 간혹 〈동요와 동시〉 혹은 〈동화〉가 엿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은 《유아시간》의 퇴행을 촉발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시간》은 어느 정도 요일별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한 듯하나,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개편 이후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동요〉에 비중을 둔 듯하나, 그 외에도 〈소년소설낭독〉, 〈동극〉, 〈피아노나 하모니카 합주〉 등이 뒤섞여 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어린이상식〉이 오가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양상을 띠었다. 단 금요일에는 비교적 〈소년소설 낭독〉이나 〈동극〉 위주로 방송되었다. 12월 15일 개편 이후 이러한 흐름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일요일에는 〈동요〉, 월요일에는 〈소년소설 낭독〉이나 〈동화 낭독〉, 화요일에는 〈어린이상식〉, 수요일에는 〈노래극〉이나 〈동극〉, 목요일에는 〈하모니카 합주〉, 금요일에는 〈동극〉, 토요일에는 〈동극〉이나 〈동화〉가 방송되었다. 물론 요일별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운영과정에서 깔려 있는 것은 여전히 〈동요〉이었다. 그럼에도 《어린이시간》에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은

37) 방송문화연구실, 『청취자의 소리-제1차 방송여론조사결과』, 『방송』 제15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7.11, 46쪽.



주목할 만하다. 주요 창작층은 유호, 이종환, 이원수, 배옥천, 박황봉, 장인철, 김달석, 이종수 등이었다. 이 시기에도 어린이문학가를 비롯해 극작가, 소설가, 시인 등 다양한 작가층이 창작에 참여했다. 그러나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을 꾸준히 창작한 작가들은 드물었고, 그만큼 작품의 수준도 들쭉날쭉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선진성이 강조되던 방송 분위기 속에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향방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54년에 접어들어 KBS는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사뭇 달랐다. 4월과 10월 두 번의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의 변화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유아시간》이 폐지되는 대신 《어린이시간》의 방송시간이 연장되었다. 《유아시간》은 4월 개편 이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와 달리 《어린이시간》은 강화되었던 국면을 보여준다. 『한국방송사』는 4월 개편 이후 《어린이시간》을 30분으로 연장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sup>38)</sup> 실상은 그렇지 않다. 4월 개편 이후 《어린이시간》의 방송시간은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되었고, 10월 개편 이후에는 다시 35분으로 연장되었다. 정작 《어린이시간》이 30분으로 고정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5년 1월부터다. 이러한 방송시간의 연장은 《어린이시간》이 강화되는 뚜렷한 계기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어린이시간》의 요일별 세부 프로그램에서 뚜렷한 변화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방송시간의 연장에 따라 운영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세부 프로그램의 신설도 뒤따랐다. 운영방식이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이미 1954년 2월부터다. 일요일에는 〈작은 음악회〉, 월요일에는 〈동극〉, 화요일에는 〈연속동화〉나 〈동화〉, 수요일에는 〈동요〉, 목요일

38)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258쪽.

에는 〈아코디온 독주〉, 금요일에는 〈소년소설낭독〉, 토요일에는 〈무엇 일까요〉가 방송되었다. 이 시기부터 요일별 세부프로그램이 짜임새를 갖추고 거기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KBS의 대표적 어린이 퀴즈 프로그램인 〈무엇일까요〉가 신설된 것은 10월 개편 직후<sup>39)</sup>가 아닌 1954년 2월부터였다. 〈무엇일까요〉는 어린이 상식 문제를 알아맞히게 하는 방식으로, 신설 당시부터 구성을 담당했던 것은 주로 박일암이었다.

4월 개편 이후 신설된 프로그램은 〈어린이신문〉이다. 〈어린이신문〉은 해방기 〈어린이 새소식〉의 후신으로 보이며, 5분 연장된 방송시간을 매일 담당하는 것은 적어도 8월 이후부터다. 10월 개편 이후 방송시간이 15분 연장되었을 때 〈어린이신문〉이 방송된 후 〈노래앨범〉을 배치하기도 했지만,<sup>40)</sup> 결국 세부 프로그램의 신설로 이어졌다. 〈연속어린이극〉과 〈누가 누가 잘하나〉이 바로 그것이다. 〈연속어린이극〉은 1954년 11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되었으며, 첫 어린이연속극은 최요안의 『바람부는 언덕』이었다.<sup>41)</sup> 미군정기 『뽕뽕이의 모험』으로 어린이연속극의 성공을 체험한 터인데다, 당시 〈연속동화〉가 매주 월요일 방송되었던 상황이기도 했다.<sup>42)</sup> 그리고 〈누가 누가 잘하나〉는 10월 개편 직후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sup>43)</sup> 1955년 2월 11일 금요일 첫 방송되었

39) 『한국방송사』에 따르면, 〈무엇일까요〉는 1954년 10월 30일에 첫 방송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위의 책, 258쪽. 그러나 방송 회차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도 드러나지 않았다.

40) 〈노래앨범〉시간은 동요 독창과 합창뿐 아니라 피아노나 아코디언 독주나 합주를 뒤섞어가며 변화를 꾀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35분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밋밋해질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

41) 『라디오』, 『조선일보』·『동아일보』, 1953.11.2, 2면.

42) 전후 첫 〈연속동화〉는 9월 6일부터 방송된 황광은 작의 『소녀성』이다. 『라디오』, 『조선일보』, 1953.9.6, 2면.

43)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258쪽. 그러나 『한국방송사』 내에서도 〈누가 누가

다. 〈누가 누가 잘하나〉는 카드를 뽑아서 거기 적힌 노래를 부르게 하는 어린이 노래자랑 프로그램으로,<sup>44)</sup> 〈무엇일까요〉의 성공에 힘입어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두 프로그램 모두 어린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어 KBS 《어린이시간》의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세부 프로그램들은 요일별로 편편성을 하면서 체계성과 다양성을 갖추는 데 조력하였다.

이상에서 보듯 《어린이시간》은 전쟁 직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전화(戰禍) 속에서 사상전의 참병으로 훈육되었던 전쟁기나 전쟁의 상흔에서 어린이들을 위무하려는 노력들이 휴전 직후 경직된 양상을 띤었다면, 1954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들을 거리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특히 잇따른 오락 프로그램의 신설과 연속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것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진일보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이르면 어린이 프로그램은 세부 프로그램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라디오매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오락 프로그램의 신설이 더 많은 어린이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꾀한 것이었다면, 연속물의 증가는 라디오방송에 걸맞은 창작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연속물은 단편물 중심의 들쭉날쭉했던 작품 수준과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해갔다. 이 시기 활동한 작가로는 최요안, 조훈파, 이원수, 황광은, 박화목, 유 호, 박일암, 이종수, 이근호, 박일석, 김기실, 장인철, 문제안 등이다. 여기에서 라디오매체에 익숙한 전속작가뿐 아니라 어린이문학

잘하나)가 1954년 5월부터 방송되었다는 기술이 상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힘입어 〈무엇일까요〉가 신설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책, 286쪽. 이를 두고 볼 때 『한국방송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하겠다.

44) 현 일, 『방송이 들리기까지』, 『방송』 제1권 제2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6.10, 33쪽.

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그만큼 작품에 대한 기대지평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55년에도 큰 변동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프로그램 개편을 전후한 《어린이시간》의 세부 프로그램을 요약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sup>45)</sup>

[표2] 1954년 8월 KBS 《어린이시간》 프로그램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8:10~18:15	어린이신문						
18:15~18:30	작은 음악회	동화	동극/ 노래앨범	무엇 일까요	노래앨범	노래교실	노래극

[표3] 1955년 3월 KBS 《어린이시간》 프로그램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7:30~17:35	어린이신문						
17:35~18:00	작은 음악회	노래앨범	노래앨범	무엇 일까요	노래모음	누가누가 잘하나	노래극
		동화/ 연속동화	연속 어린이극		연속 어린이극		

한편 1954년 12월 15일 민간방송인 기독교방송국(이하 CBS)이 개국하고 오후 6시부터 첫 방송을 실시하였다.<sup>46)</sup> CBS는 기독교적 교양을 육성하고 아울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선교하며 도의심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개국 당시 방송의 기본편성 또한 여기에 준해 공신력

45) 세부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일간지들의 『라디오』 안내를 비교·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다. 『라디오』, 『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 1954.1.1.~1955.3.31.

46) CBS의 설립 움직임은 이미 1948년부터 시작되어 1949년 6월 15일 한국의 체신부장관과 공보처장으로부터 정식으로 방송국 설립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미국선교본부로부터 방송기자재를 기다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무산되었다. 1954년 8월 31일 기독교연합회가 CBS후원회를 만들어 박차를 가한 결과 동년 12월 15일에 CBS가 개국하게 되었다.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47~748쪽.

확보에 힘썼다. 따라서 종교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하며, 여기에 음악과 교양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었다.<sup>47)</sup> 이러한 상황은 《어린이시간》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CBS의 《어린이시간》은 대표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고정적으로 편성·방송되었다. 개국 이후부터 1955년에 이르는 시기 CBS의 《어린이시간》은 오후 6시 35분부터 25분간 고정적으로 방송되었다. 이때 KBS와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줄곧 편성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라디오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안배하기 위함이었을 뿐 아니라 KBS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8)</sup>

다음으로, CBS는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 선도라는 창립목적에 걸맞은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편성하였다. 두 번째 연속동화로 〈성경동화〉 『아기예수전』을 택해 1955년 1월 12일 수요일부터 방송하였는가 하면, 뒤이어 〈어린이성가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찬송가 보급에 앞장섰다. 일요일에는 〈어린이교회〉 시간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기독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종교방송의 특색을 분명하게 살려 공신력 확보에 힘썼던 증좌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청취 대중과 친밀성을 확보하는 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었다.<sup>49)</sup> 그럼에도 설립 초기의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되었다.

그 다음으로, CBS는 비교적 《어린이시간》 운영을 위한 안정된 프로

47) 사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35~37쪽.

48) CBS는 종교방송의 특성과 함께 기존 프로그램 편성에서도 KBS와 차별화 전략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56년 이후 두 방송국의 물밑 경쟁이 적지 않았고, 1958년에는 KBS와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책, 62~66쪽.

49) CBS의 《어린이시간》이 보다 일반적인 청취 대중의 포맷에 맞춰간 것은 1958년 진 후다. 이는 후속 논의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그램 포맷을 마련하여 방송에 임했다. KBS가 1955년 초반까지 혼전을 거듭해가며 《어린이시간》을 일신해 갔다면, CBS는 그러한 전철을 참조하여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개국 당시였던 1954년 12월과 1955년 1월 사이에 적지 않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1955년 1월 4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속동화> 『잃어버린 장갑』을 매일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는가 하면, 그 후로는 요일별 세부 프로그램을 재배치시켰다. 1월 7일부터는 <명작이야기>는 금요일, <위인의 어렸을 적>은 화요일, <연속성경동화>는 수요일로 옮겼다. 금요일마다 방송되던 <이달의 훈화>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만 방송하고, 그 외에는 <동화>를 내보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개국 당시의 포맷은 1월부터 조정하여 셋째 주에 이르러 기독교방송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중앙방송국에 비해 발 빠르고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부 프로그램은 1955년 5월 개편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바뀐 부분은 프로그램 내용의 변화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 정도다. 화요일과 수요일 6시 50분부터 7시까지 프로그램명이 모두 <동요합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월 20일부터 일요일에 한해 아침시간에 3시간 30분씩 예배 프로그램과 선교 프로그램을 강화했는데,<sup>50)</sup> 이때 오전 7시 15분부터 30분까지 <어린이성가>가 방송된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1955년 5월 개편으로 《어린이시간》은 큰 변화가 드러나지 않았던 셈이다. CBS가 안정화된 이후 《어린이시간》의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50) 사사편찬위원회 편, 『CBS50년사』, 2004, 81쪽

[표4] 1955년 1월 CBS 《어린이시간》 프로그램

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8:35~18:50	어린이 교회	동극	위인의 어렸을 적	연속 성경동화	라디오 교실	연속 명작극	동화
18:50~19:00	어린이 성가	올겐독주	작은 음악회	어린이 성가대	노래교실	동요 합창	노래잔치

마지막으로, 이 시기 CBS 《어린이시간》에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비중에 비해 역량을 갖춘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활동한 작가로는 박화목, 황광은, 박일암, 이영근, 이종수, 서계영, 모기운, 최요안, 조남사, 조흔파, 이원수, 황광은, 유 호, 장수철 등이다. CBS의 어린이문학이 창작물보다 번역물이 적지 않았음에도, 대체로 문협 소속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KBS 전속과 무관하게 방송국을 오가며 창작활동을 하였던 것도 역력해 보인다. 이는 교양과장 박화목의 역량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국뿐 아니라 문단의 기반을 바탕으로 많은 작가들을 라디오방송 창작에 참여시켰다 하겠다.<sup>51)</sup> CBS가 KBS에 견주어 《어린이시간》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5. 결론

해방 후부터 전후복구기까지 라디오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시대적 격랑 속에 부침하면서도 고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51) 박화목은 교양과장으로 재직 당시 예외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문인들에게 방송출연료나마 도와주고 싶어 문예시간의 존속을 고집했다고 술회했지만, 결과적으로 방송의 질을 높인 결과를 가져왔다. 위의 책, 74쪽.

리는 동안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은 특정 장르에 경도되어 좌충우돌하기도 했지만 차츰 안정적 자리를 구축해 나갔다. 창작층의 드난이 적지 않았던 상황도 개선되어 갔다. 하지만 라디오매체에 충실한 어린이문학의 기대지평은 여전히 난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방송환경의 개선이 어린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꾀한다 하더라도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수준을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대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창작과 향유의 코드가 지향한 바는 내외적 조건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다. 그러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재편과정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데 주력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시기별로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이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창작층에 의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자리매김했는지 추이와 특성을 살펴나갔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기 라디오방송 어린이 프로그램은 고정적인 시간대에 운영되었던 대표적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1945년 10월에 부활한 《어린이시간》은 오후 6시대에 15분간 방송되었는데, 서울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돌아가며 운영되었다. 왜색 동요가 범람하던 당시 우리 동요 중심으로 방송되었는데 ‘봉선화 어린이 노래회’를 주축으로 한 동요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동화나 동극도 적지 않았는데, 이때 홍은순, 양미림, 유영애 등 작가들의 약진이 특기할 만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946년 10월 18일 미국식 편제가 도입되어 정시방송제와 쿼터제가 실시된 이후 사뭇 달라졌다. 시그널 뮤직이 도입되는가 하면 《유아시간》이 신설되었다. 《어린이시간》의 세부 프로그램도 〈어린이 새소식〉, 〈선생님말씀〉, 〈과학이야기〉, 〈위인의 어렸을 적〉 등과 같은 교양함양에 조력하는 세부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특히 어린이연속극 『똥똥이의 모험』이 시도되어 성공적 결과를 낳았는데, 이때 미 고문관의 작가들뿐 아니라 김영



수, 김내성, 유 호 등 역량 있는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문제는 4년 여 동안 방송된 후속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았고 그마저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는 점이였다.

한국전쟁기 라디오방송이 파행을 겪는 동안 어린이 프로그램도 한동안 사라졌다. 1951년 12월 16일 개편 이후에야 어린이 프로그램이 속개되었다. 이시기 주목할 만한 점은 유엔군사령부가 제공한 동화 프로그램 《할머니얘기》가 번역되어 매일 방송되었다는 것이었다. 전쟁승리라는 목적 아래 어린이 프로그램도 동원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활된 《어린이시간》은 고정적으로 편성되었지만, 군과 경찰 소속의 동요회 중심으로 전시동요가 방송되었다. 작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상황에서 동화와 동극,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은 매우 약화되었고, 일부 발굴된 작품들은 당시 목적문학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어 보였다.

전후복구기 라디오방송은 전화(戰禍)로 열악했던 방송기반을 복구하는 한편 국민의 재건의지를 북돋우고 위안을 주는 데 주력하였다. 1953년 세 차례에 개편이 단행되는 가운데 어린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고정적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요에 치중했던 《유아시간》이 비인기 시간대로 밀려나는가 하면, 《어린이시간》 또한 동요 중심으로 재편되며 운영상 문제를 노출하였다. 《어린이시간》은 11월과 12월 개편 과정에서 〈어린이상식〉, 〈동화〉, 〈동극〉, 〈노래극〉 등 세부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으나 불안정한 운영상을 드러내었다. 당시 어린이문학 창작에 참여했던 작가로는 유호, 이종환, 이원수, 배옥천, 박황봉, 장인철, 김달석, 이종수 등이었다. 전쟁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이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창작에도 힘을 싣고 있었다.

라디오방송 어린이 프로그램이 안정적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것은

1954년부터였다. 4월 개편 이후 《유아시간》이 폐지되는 대신 《어린이시간》은 10월 개편 이후까지 방송시간이 점층적으로 연장되었다. 《어린이시간》은 요일별 세부 프로그램대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었는데, 연장된 시간만큼 프로그램의 신설도 이루어졌다. 4월 개편으로 〈어린이신문〉이 신설되었는데, 매일 5분으로 고정된 것은 8월 이후였다. 〈연속어린이극〉은 10월 개편 직후가 아닌 11월 초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방송되었는데, 〈연속동화〉에서 보듯 새롭게 연속물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9월부터였다. 그리고 대표적 오락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무엇일까요〉는 10월 개편 이후가 아닌 1954년 2월부터 방송되었고, 〈누가 누가 잘하나〉는 4월 개편 이후가 아닌 1955년 2월에 시작되었다. 이시기 활동한 작가들은 최요안, 조훈파, 이원수, 황광은, 박화목, 유희, 박일암, 이종수, 이근호, 박일석, 김기실, 장인철, 문제안 등으로 1953년에 비해 어린이문학가들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과 작가층의 형성은 1955년에도 큰 변동 없이 이어졌다.

아울러 1954년 12월 15일 기독교방송국이 개국함에 따라 국영방송 서울중앙방송국과 이원 체제가 형성되었다. 기독교방송국은 《어린이시간》을 오후 7시대에 25분간 고정적으로 운영하였고, 대체로 안정적 포맷을 갖추고 방송을 시작하였다. 종교방송의 특색을 살리는 〈어린이교회〉, 〈어린이성가대〉, 〈연속성경동화〉 등을 마련하여 방송하였다. 〈연속명작극〉은 〈연속성경동화〉와 함께 연속물이 고정적으로 배치하였고, 창작극보다 번안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단편물은 월요일에 방송되는 〈동극〉과 토요일에 방송되는 〈동화〉를 동요와 연주 중심의 세부 프로그램 이전에 조각 편성하였다. 그리고 〈라디오교실〉은 과학 이야기를 대화극 형식으로 꾸며 방송했는데, 기독교방송국만의 특징적 면면이기도 했다. 당시 활동했던 작가는 최요안, 조남사, 조훈파, 이원수, 황광은, 박

화목, 유희, 장수철, 박일암, 유신, 이영곤, 이종수, 서계영, 모기윤 등으로 서울중앙방송국에 비해 출발부터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상의 어린이 프로그램의 재편과정에 대한 논의들은 라디오방송 어린이문학의 본격적 연구를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껏 일부 방송사와 회고담에 기대어 잘못 기술된 부분을 바로잡는 동시에 망실된 방송자료 및 1차 자료들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로써 라디오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린이문학의 면면이 재조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 『경향신문』, 1946.10.6.~1959.4.29.  
『동아일보』, 1945.12.1.~1959.12.31.  
『서울신문』, 1945.11.23.~1959.12.31.  
『조선일보』, 1945.11.23.~1959.12.31.  
『한국일보』, 1954.6.9.~1959.12.31.

### 2. 논문 및 단행본

- 공보실 방송관리국 편, 『방송』 제1호~제34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6.9~1959년 겨울.  
국군방송40년사 편찬위원회 편, 『국군방송 40년사』, 국군홍보관리소, 1995.  
김영희,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노정팔, 『한국방송과 50년』, 나남, 1995.  
방송문화연구실, 『청취자의 소리-제1차 방송여론조사결과』, 『방송』 제15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7.11, 46쪽  
사사편찬위원회 편, 『CBS50년사』, CBS, 2004.  
송영호, 『방송 13년 이면사』, 『방송』 제28호, 공보실 방송관리국, 1958.12, 74쪽.  
윤석산, 『통암 박의섭의 방송동극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3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151~172쪽.  
이내수, 『이야기 방송사』, 씨앗을뿌리는사람, 2001.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장영민, 『한국전쟁기 유엔군사령부의 KBS통제와 지원』,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1호, 2012, 한국언론학회, 441~482쪽.  
정진석 편, 『6·25 전쟁기간 4대신문』, LG상남언론재단, 2009.  
\_\_\_\_\_, 편, 『한국방송관계기사모음』, 재단법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92.  
최명표, 『방송동극을 통한 민족정체성의 추구-박의섭론』, 『아동문학평론』 제36권 제2호, 아동문학평론사, 2011, 22~47쪽.  
최미진, 『한국 라디오서사의 갈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69~193쪽.  
\_\_\_\_\_, 『한국전쟁기 라디오서사와 문제안의 『남북삼천리』』, 『한국민족문화』 제49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123~155쪽.  
\_\_\_\_\_, 『1950년대 안동민의 라디오동화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5집, 한국문학

- 회, 2013, 579-614쪽.
- 최창봉·강현두, 『우리방송 100년』, 현암사, 2000.
- 최현철·한진만, 『한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적 연구』, 한울, 2004.
- 하신애, 『박태원 방송소설의 아동표상 연구-전시체제기 일상성과 프로파간다 간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45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335-369쪽.
- 한국TV방송50년위원회 편, 『한국의 방송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한국방송7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방송사70년』, 한국방송협회·한국방송공사, 1997.
- 한국방송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방송사』, 한국방송공사, 1977.
- 한국방송작가협회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방송작가협회 50년』, 한국방송작가협회, 2000.
- 한용희, 『한국동요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8, 118쪽.
- 한운사, 『구름의 역사』, 민음사, 1996.
- 홍근표, 『아동극의 어제와 오늘(상)』, 『아동문학평론』 제1호, 아동문학연구원, 1976, 53-59쪽.
- \_\_\_\_\_, 『아동극의 어제와 오늘(하)』, 『아동문학평론』 제2호, 아동문학연구원, 1976, 25-29쪽.

## Abstract

### Children's Radio Programs and the Position of Children's Literature (1)

Choi, Mi-Jin(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oundation and position of children's literature by taking a close look at how radio programs for children had been realigned from the time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until the post-war restoration period.

First, children's programs were among the regular radio program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For example, <Children's Time> which was reinstated in October 1945 was broadcast for fifteen minutes in kindergartens and primary schools across Seoul. Songs for children took center stage with considerable amount of stories and plays for children. It is noteworthy that female writers made strides during this period. Since October 18, 1946, when the American programming system was introduced, a signal music began to be used and <Toddlers' Time> was newly broadcast. <Children's Time> offered a variety of sub-programs to help young audience enhance the level of their culture, but existing creative works lost some ground. In particular, a pilot program 『Ddolddori's Adventure』 resulted in a great success for which many competent writers worked together. The problem was that after about four years of broadcasting, good follow-up program was not produced, whose broadcasting was even suspended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Second, radio broadcasting was crippled in the middle of the Korean War and programs for children were broadcast again only after the broadcasting reorganization on December 16, 1951. During this period, <Stories from Grandmother> presented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was translated and broadcast everyday, while wartime children's songs were played on <Children's Time> mainly by the children's songs clubs of the military and police. As the number of writers for radio programs was not enough, other genres lost more ground and became more of the purposed literature.

Third, radio programs for children during the post-war restoration period

continued to change year after year. In 1953, 〈Toddlers' Time〉 which focused mainly on children's songs in the process of three rounds of reorganization, weakened, while 〈Children's Time〉 continued to supplement its sub-programs but revealed instability in its operation. At the time, creation of children's literary works gradually increased but the share of literary writers was relatively small, which made it difficult to guarantee the quality and value of the works. In 1954 when the nation began to be stabilized, 〈Children's Time〉 was broadcast longer and a series of new programs were introduced while 〈Toddlers' Time〉 was scrapped. It was during this time when two of the popular quiz shows 〈What is this?〉 and 〈Children's Play Series〉 started. Many professional writers also joined hands, enhancing the posi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nd adding more weight to these programs. This trend continued until 1955. Meanwhile, the Christian Broadcasting Station, opened in 1954, began to regularly broadcast 〈Children's Time〉 with a stable broadcasting format. Its sub-programs arranged religious works, dialogic plays with scientific themes and serials with a fixed schedule. As opposed to serials, most of which were adapted stories, creative works went on the air for short programs, where a lot of renowned writers of children's stories and radio broadcast writers participated, expanding the scope for children's broadcast programs. Given the discussions above, it is hoped that problems in some broadcasting stations will be fixed while the foundation can be laid for studying children's literature in earnest.

(Keyword : Radio broadcasting, children's programs, children's literature, liberation period, Korean War period, post-war restoration period, KBS, CBS, 〈Children's Time〉, 〈Toddlers' Time〉)

투고일 : 2014년 2월 27일 투고  
심사일 : 2014년 3월 5~28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4년 4월 4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4년 4월 11일 게재확정